

24시간 화재감지로 안전한 강진 전통시장 만든다

강진읍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해...대형화재 예방 가능해져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으로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통시장 만들어”

강진군은 지난 22일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화재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강진읍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비 포함 총 4,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장 내 연기, 열, 불꽃 등 3가지 화재원인을 감지하는 화재감지기 34개를 설

치했다.

설치한 불꽃 감지기는 개별 점포뿐만 아니라 화재 취약지점인 광장 및 주차장 등 공용 구간도 화재감지가 가능해 화재감지 정밀도를 더욱 높였다. 또 화재 발생시 소방서 및 점포주에 신속히 통보하여 조기 진화가 가능해졌다.

강진군과 강진소방서, 상인회 관계자들은 감지시설 시연을 통해 시설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1월 중 화재알림시설을 정상 운

영할 예정이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전통시장은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취약시설”이라면서 “이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작년 12월 관내 3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기, 소방, 가스 분야 외부 전문가와 함께 화재예방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하반



기에는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코로나19 극복 화훼 농가 돕기 운동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졸업·입학식 비대면 진행과 각종 행사 취소로 지역 내 화훼 농가의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

장흥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하여 사무실 꽃 생활화 참여로 관내 화훼 농가 꽃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내에서 재배한 장미, 카네이션, 알 스트로메리아, 거베라 등을 군 산하 부서 등과 연계하여 꽃 사주기 운동을 추진 중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화훼 농가가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최근 한파로 난방비 등 경영비가 증가하면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흥군의 꽃 사주기 운동이 화훼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장흥군, 귀농·귀촌 상담~정착까지 한번에

장흥군은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함께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도시민 적극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2월 15일부터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에서는 귀농·귀촌에 관한 종합 상담 및 도시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지원 업무 등을 전담하여 도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흥군은 올해 귀농·귀촌 육성 목표를 500가구 1,000명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민 임시 체류 공간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참여 및 농촌에서 살아보기(농촌 생활 및 일자리 체험, 지역민과 교류 등), 농지·빈집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 등 새로운 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서 해양치유로 코로나 블루 해소”

내달 26일부터 프로그램 시작...참가자 선착순 접수

완도군은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몸&힐링’을 주제로 하는 상반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2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되며, 관광객 및 일반인 대상은 10회, 12개 읍면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12회 운영한다.

또한 지역사회단체 웰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체험 후 다음 단체를 지정하여 체험하도록 하고, 치매경증환자와 소방공무원 등 코로나 블루에 취약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해양기후를 활용한 노르딕워킹, 필라테스, 해변에서사이즈, 명상 등 해변 아웃도어 프로그램과 해수와 해양생물을 이용한 해수찜, 청산도에서 자란 보리로 만든 곶

정보리 커피와 황칠, 비파 등 꽃차 시음과 해조류가 들어간 다양한 해양치유 음식 시식 등이다.

해양치유 체험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완도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봄, 여름, 가을 계절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체험관을 총 163회 운영하여 13,779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못 가서 아쉬웠는데, 완도 해양치유 체험이 해외보다 더 좋다.”, “바다 일로 지치고 힘들었던 몸을 노르딕워킹으로 풀고 나니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해양자원이 치유자원이 되 활용된다니 놀랍고, 이게 바로 힐링이다.” 등 다양한 소감을 남겼다. 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영농편의 향상’ 받기반 정비사업 박차

올해 황산 병은·삼산 충리 등 5개지구 시행

해남군이 발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받기반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로 추진되는 황산 병은지구 130.4ha와 삼산 충리지구 58.1ha를 포함해 황산 옥동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받기반 정비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신규지구는 4년에 걸쳐 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올해 말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계획이다.

받기반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의 배수로 정비와 농로 확포장, 저류조 설치 등 농업인 편의와 영농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 사업비 중 국도비 지원율이 90%로 군의 재정 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고나면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민친화적인 친환경 농업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주민들의 농업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은 1994년부터 89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체 밭면적 1만 2,364ha의 41.4%인 3,449.6ha에 대한 받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군은 앞으로도 받기반 정비사업을 비롯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영농편의 개선에 꾸준히 예산을 투자해 농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경영 안정과 농도의 위상을 지키는데 힘쓸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도서지역 닥터 헬기장 2곳 추가 건설

의료 취약 도서지역 응급환자 후송 체계 확립

진도군이 도서 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 헬기’ 이·착륙장 2곳을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로 건설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군은 국·도비 예산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조도면 외병도와 청등도에 닥터 헬기장을 건설한다.

닥터 헬기장은 응급 환자와 인명·재산 피해 등의 사고 발생 시 현장 접근성 향상과 항공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료 취약 도서 지역 응급 환자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조도면 장유리 헬기 이·착륙장을 시작으로 관매도, 내병도, 맹골도, 가사도, 대마도, 판사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성남도, 나배도, 옥도까지 총 12개소를 건설 완료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진도군 섬 중 100인 이상 거주 섬에는 모두 설치 되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닥터 헬기는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 보건 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